

JD Edwards 기자 간담회

“한국중기 ERP 두자릿수 성장할 것”

정교한 시스템 요구... 중견중소기업 공략
라일엑달 JD Edwards 부사장

한국오라클이 중소중견 기업 전자자원관리(ERP)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17일 한국오라클은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스코ICT와 함께 국내 중소 ERP 시장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JD 에드워즈는 오라클의 중견중소기업(SMB) 대상 전자자원관리(ERP) 솔루션이다. 오라클은 대기업 시장은 ‘오라클 E비즈니스 스위트’로, SMB 시장은 JD 에드워즈 엔터프라이즈원으로 구분해 ERP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동안 SMB ERP 시장은 SAP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오라클이 2004년 JD 에드워즈를 인수한 이후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엑달 부사장은 우리나라 SMB 업체들이 ERP와 관련해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JD 에드워즈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구매, 회계 등 일부에서 ERP를 쓰고 있던 한국의 SMB 업체들이, 회사가 커지면서 더 정교한 ERP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가 JD 에드워즈를 도입해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ICT는 오라클의 VAD(Value Added Distributor) 파트너로, 중소중견기업용 ERP 솔루션인 JD에드워드의 유통 뿐 아니라 국내 JD에드워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일 엑달 오라클 JD에드워드 그룹 부사장은 “포스코ICT와의 파트너십으로 기존 오라클 고객은 물론 잠재 고객까지 오라클 ERP의 진가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솔루션센터 구축 등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오라클과 포스코ICT는 국내에 오라클솔루션센터를 설립, ERP 솔루션 도입을 고려 중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리 솔루션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능에 대한 PoC 등 테스트 환경도 제공한다.

한국오라클은 올해 JD에드워드의 신규 고객으로 카카오오픈, 한국콜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개 고객을 신규로 확보했다. 박세진 한국오라클 상무 역시 “기업들이 JD에드워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오라클의 최신 데이터베이스와 미들웨어 등도 포함해 함께 쓸 수 있다”며 “때문에 기존 경쟁사 ERP 제품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강조했다. 엑달 부사장은 “현재 PC 중심의 업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오라클은 JD 에드워즈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 07. 18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년 07월 18일 목요일 010면 전체

“한국 중기 ERP 두자릿수 성장할 것”

라일 엑달 오라클 부사장



“한국 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ERP 영업이 두자릿수 성장을 할 것입니다.”
17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만난 오라클 라일 엑달(Lyle Ekdahl) JD 에드워즈 그룹 부사장(사진)은 국내 중소기업 ERP 시장에서 오라클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JD 에드워즈는 오라클의 중견중소기업(SMB) 대상 전자적 자원관리(ERP) 솔루션이다. 오라클은 대기업 시장은 ‘오라클 E비즈니스 스위트’로, SMB 시장은 JD 에드워즈 엔터프라이즈원으로 구분해 ERP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동안 SMB ERP 시장은 SAP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오라

“정교한 시스템 요구
중견중소기업 공략”

클이 2004년 JD 에드워즈를 인수한 이후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엑달 부사장은 우리나라 SMB 업체들이 ERP와 관련해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JD 에드워즈를 선택하는 비중

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구매, 회계 등 일부 분야에서 ERP를 쓰고 있던 한국의 SMB 업체들이, 회사가 커지면서 더 정교한 ERP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가 JD 에드워즈를 도입해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엑달 부사장은 최근 SMB 부문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JD 에드워즈 엔터프라이즈원을 모바일로 구현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엑달 부사장은 “현재 PC 중심의 업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며 “오라클은 JD 에드워즈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근기자 bass07@